

[1] 아버스는 잘못을 저지른 형제들에 대하여 온갖 염려를 다하여 돌볼 것이다. “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기” 때문이다. [2] 그러므로 (아버스는) 현명한 의사와 같이 모든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“센펙타”, 즉 연로하고 지혜로운 형제들을 보내어 [3] 흔들리는 형제를 거의 남모르게 위로하게 하고, 겸손되이 보속할 수 있도록 권유하며, “지나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” 그를 위로하게 할 것이다. [4] 그리고 사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“그에게 대하여 사랑을 더 베풀 것이며”, 또 모든 이는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.

[5] 아버스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도록 큰 염려를 기울여야 하며, 온갖 지혜와 열심으로 쫓아다녀야 한다. [6] 그는 자신이 건강한 영혼들 위에 학정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한 영혼들을 돌볼 (책임을)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. [7] 그는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“너희가 살찌 보이는 것은 취하고, 연약한 것은 버렸다” 하신 경고를 두려워해야 한다. [8] 또 그는 아 혼아홉 마리의 양들을 산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착한 목자의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. [9] 그분은 그 양을 당신의 거룩한 어깨에 메고 양의 무리로 다시 데려다 주실 만큼 그 양의 연약함에 동정이 극진하셨다.